인문계열
2013학년도 수시2차 논술고사 기출문제

<유의 사항>

- 시험 시간은 120분임.
- 파랑색이나 검정색 볼펜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함.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원시인들은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비록 그들이 아는 장소에 특정의 거리 이름, 이를테면 '웨스트 4번가'라거나 '다운타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자연의 특이한 표식을 인식하거나 자신의 기억을 활용함으로써 언제라도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아닌 다른 존재가 있음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기호나 표시도 창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이러한 종류의 지식을 특수한 환경에서 무수히 많은 경험을 통해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저 나무에는 다람쥐 둥지가 있고, 저 녁이면 이 샘으로 호랑이가 물을 마시러 오기 때문에 물을 길으려면 아침에 일찍 오는 편이 더 안전하며, 저 개울에 있는 돌은 화살촉으로 쓰기에 안성맞춤임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 지식이 그들의 정신과 기억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을 것이다.

동물의 경우에도 그 정신과 기억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종류의 지식이다. 동물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 또한 동물은 길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혼자 낯선 지역을 지나서 집까지 찾아왔다는 동물에 관한 이야기는 그런 점을 잘 말해 준다. 내가 키우는 검둥개도 자신의 환경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어떤 사람과 차를 타는 것이 안전한지, 사슴이 잘 나타나는 지역은 어디인지를 알고 있으며, 심지어 아침식사 후에는 잼과 버터를 바른 빵 한두 조각이 간식으로 나온다는 것까지도 잘 알고 있다. 우리 고양이 역시 특수한 것에 관한 지식들을 상당수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으며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새들이며, 밤에 마당을 가로지르는 여우들이며, 헛간에 사는 쥐들도 자신들의 주위 환경에 관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아마도 쥐든 고양이든 개든 그 녀석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모두 특수한 것이리라.

하지만 우리 사람은 알지만 동물은 모르는 또 다른 종류의 것들이 있다. 우리는 태양이 아침에 뜨고 하늘을 가로질러 저녁에 진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태양이 매일 그렇다는 것을, 심지어

구름이 가로막더라도, 이 세계가 존재하는 한에는 항상 그럴 것임을 안다. 우리는 모든 생물이 태어나고, 또한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지식은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지식이 아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사물의 원인을 알고 있다. 적어도 일부 사물에 대해서는 말이다. 이러한 지식은 어느 시간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적용되는 불변의 지식이다.

이런 지식, 그리고 이와 유사한 다른 지식은 보편적 지식의 일부분이다. 이런 지식을 서술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특수한 것에 관한 지식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언어와는 다르다.

(a) 저 나무 아래에는 다람쥐 둥지가 있다.
(b)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은 태어나고 또한 죽는다.

그 무게와 그 아름다움이란 차원에서 이 두 가지 진술은 얼마나 서로 다른가! (a)의 진술은 평상시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혹시나 우리가 배고픈 경우라면 의외로 중요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진술이 성립하려면 특정한 환경이 필요하다. 반면 (b)의 진술은 그 어떤 시간이나 어느 장소에서도 장엄한 진실이다.

(나)

1580년 여름에 몽테뉴는 평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프랑스 밖을 나와서 첫 여행길에 올랐다. 스위스 여러 마을의 여관에서는 바닥보다 높이 솟아 있는 침대가 정상적인 것으로 통했기 때문에 침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디딤판이 필요했다. 침대 주위에는 멋진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으며, 여행객들에게는 나름대로 은밀한 공간이 주어졌다. 그런데 그곳에서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독일 지역에서는 방바닥과 거의 구별이 없는 높이의 침대가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침대 주변에는 커튼도 없었으며, 여행객들은 한 방에 네 명씩 자야만 했다. 그곳의 여관 주인들은 여행객들에게 프랑스 여관에서 볼 수 있는 침대 시트 대신에 깃털 이불을 내놓았다.

바젤에서는 포도주에 물을 타지 않았으며 저녁식사 때에는 예닐곱 가지의 코스 요리를 즐겼다. 매주 수요일에는 생선으로만 식탁을 꾸몄다. 린다우에서는 모과로 만든 수프를 내놓았으며, 고기 접시는 수프에 앞서 나왔고, 빵은 회향(茴香; 여러해살이풀. 원산지는 남유럽)으로 만든 것이었다. 프랑스 여행객들은 그런 차이에 대해서 매우 언짢아했다. 호텔에서 주는 이상야릇한 음식을 꺼려하면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음식, 즉 고향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음식을 요구했다. 그들은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과는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고, 몹시 조심스럽게 회향 빵에 손을 댔다.

15세기 중반에 남부 독일에서는 카스테노펜이라고 하는 새로운 난로가 개발되었다. 별도의 버팀 장치 없이 서 있는 상자 모양의 철제 난로였다. 직사각형의 철판을 서로 붙여 폐쇄형으로 만들어졌고 석탄이나 나무를 때도록 되어 있었다. 폐쇄형 난로는 개방형 난로보다 네 배나 많은 열을 발산하는 데다 연료도 훨씬 덜 들었고 굴뚝 청소를 할 필요도 없었다. 열은 난로 둘레

의 철판에 흡수되었다가 서서히, 그리고 골고루 공간으로 퍼져 나갔다. 난로 주위에는 빨래를 말리기 위해서 막대기를 고정시켜 놓았다. 가족들은 겨울 내내 그 난로 주변에 모여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그 난로가 프랑스인들에게 감명을 주지는 못했다.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의 개방형 난로가 설치비가 덜 든다고 치켜세우며, 독일의 폐쇄형 난로는 빛을 발산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기 중의 습기를 지나치게 많이 빼앗아 방안이 답답한 분위기를 풍긴다고 비난했다. 몽테뉴는 그 이후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프랑스식 난방법을 비난하는 독일인을 만났다. 그 독일인은 철제 난로의 장점을 늘어놓으며, 개방형 난로를 사용하는 프랑스식 난방법을 비난했다.

몽테뉴는 〈수상록 1〉에 이렇게 썼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게 '그대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자, 그는 '아테네에서'라고 하지 않고 '세계에서'라고 대답했다."

(다)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은 곧 우리나라의 이소(離騷; 중국 초나라의 굴원이 지은 작품)다. 하지만 그것을 한자(漢字)로 베껴낼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악인(樂人)들이 입에서 입으로 주고받거나 한글로 써서 전할 따름이다. 어떤 사람이 〈관동별곡〉을 한자를 써서 칠언시로 번역했으나 제대로 번역할 수가 없었다. 구마라집(343-413년)이 말하기를, "인도의 풍속에서는 문학을 최고로 숭상하여 찬불시(讚佛詩)는 극도로 화려하고 아름답다. 이제 이것을 중국 한자로 번역하지만 그 의미만 전달할 수 있을 뿐, 그 가사는 옮길 수 없다."라고 했다. 정녕 그럴 수밖에 없다.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나온 것이 말이다. 말에 리듬이 있는 것이 가(歌), 시(詩), 문(文), 부(賦)이다. 세계의 말이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 각각 자기 나라 말에 따라 가락을 맞춘다면, 그것들은 모두 천지를 감동시키고 귀신을 통할 수 있는 것이니, 비단 중국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시문(詩文)은 자기 말을 버려두고 다른 나라의 말을 배워서 표현하므로, 설령 아주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민간의 나무하는 아이나 물 긷는 아낙네들이 소리 내어 서로 주고받는 노래가 비록 비루(鄙陋)하다 할지라도, 그 참과 거짓을 논한다면, 정녕 학사(學士), 대부(大夫)들의 이른바 시부(詩賦)와는 동격에 두고 논할 수 없다. 하물며 이 세 편의 노래는 천기가 스스로 발한 것을 담고 있되 오랑캐의 비루함은 없으니,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참 문장은 이 세 편뿐이다.

[출처]

* [가] : 찰스 밴 도렌 지음. 박중서 옮김, 〈지식의 역사〉, 갈라파고스, 2010.
* [나] : 알랭 드 보통 지음, 정명진 옮김, 〈철학의 위안〉, 청미래, 2012.
* [다] :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김만중 지음, 심경호 옮김, 〈서포만필〉, 문학동네, 2010).

[문제 1-1] [가]를 두 종류의 지식을 중심으로 요약하되, 각각의 지식에 해당하는 사례를 [가]에서 한 가지씩 들면서 한 편의 완결된 글이 되도록 요약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50(±50)자로 할 것(25점).

[문제 1-2] [나], [다]의 글쓴이가 비판하는 것을 각각 기술하고 두 비판의 공통점을 문화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추론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50(±50)자로 할 것(25점).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Milgram(1974)의 유명한 '복종 실험'은 평범한 사람들이 권위적 인물의 지시에 복종하여 타인에게 잔인한 공격 행동을 하게 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Milgram은 실험참여자(피험자)들에게 학습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고 밝히고 옆방의 학습자가 답이 틀릴 때마다 전기충격을 주도록 지시했다. 전기충격의 강도는 15볼트에서 450볼트에 이르도록 설정하였으며 옆방에 있는 학습자가 실수를 거듭할수록 더 높은 강도의 전기충격을 주도록 지시하였다. 실제로 전기충격은 없었지만 그는 실험참여자들로 하여금 옆방의 학습자에게 정말로 전기충격이 가해지는 것으로 믿게끔 했다. 놀랍게도 실험참여자들의 63퍼센트가 옆방의 학습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도 불구하고 실험자의 지시에 복종해서 최고 강도인 450볼트까지 전기충격을 주었다.

(나)

Zimbardo(1969)는 가해자의 비개인화(非個人化)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그는 네 명의 실험참여자로 이루어진 두 종류의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했다. 개인화된 집단에서 실험참여자들은 이름표를 달고 서로 이름을 불렀다. 비개인화된 집단에서 실험참여자들은 가운과 복면으로 모습을 가렸고 익명 상태로 실험을 수행했다. 옆방의 희생자들에게 전기충격을 주도록 하였을 때, 비개인화된 집단의 실험참여자들은 개인화된 집단의 실험참여자들보다 더 오래 전기충격을 주었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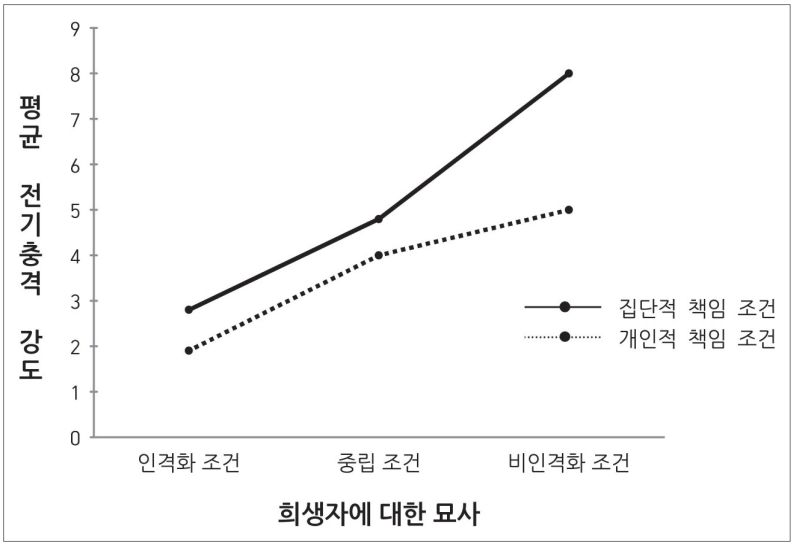
공격성에 관한 한 연구(Bandura, Underwood, & Fromson, 1975)에서는 세 명이 한 집단이 된 남자 대학생들에게 옆방에서 의사결정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팀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겼다. 감독 역할을 맡은 실험참여자들은 의사결정자들이 협상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전기충격을 주도록 지시받았다. 결정의 적절성은 불빛으로 표시되었으며 실험참여자들은 10

단계의 강도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전기충격을 줄 수 있었다. 실제로는 의사결정자들은 존재하지 않았고 전기충격도 시행하지 않았다.

실험참여자들은 개인적 책임 조건과 집단적 책임 조건의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개인적 책임 조건의 그룹에서는 세 명의 실험참여자가 의사결정자와 일대일로 배정되어 직접 전기충격의 강도를 선택하도록 했다. 집단적 책임 조건의 그룹에서는 세 명의 실험참여자들이 선정한 강도의 평균값의 전기충격을 의사결정자들에게 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덧붙여 각 책임 조건의 실험참여자들은 희생자(의사결정자)들을 묘사하는 세 가지 조건 중의 하나를 엿듣게 하였다. 세 가지 조건은 희생자들을 '감수성이 높고 이해심이 있는 사람들'로 묘사한 인격화 조건과 '짐승 같은 나쁜 무리'로 묘사한 비인격화 조건 그리고 비(非)평가적인 용어로 묘사한 중립 조건이었다.

다음은 실험참여자들이 가한 전기충격의 평균 강도를 보여주는 실험 결과이다.



[문제 2-1] '집단적 책임 조건 대 개인적 책임 조건', '인격화 조건 대 비인격화 조건'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의 실험 결과를 기술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50)자로 할 것(25점).

[문제 2-2] 현대 사회의 여러 현상들 중에서 [나], [다]의 실험 결과에 부합하는 공격성의 사례들을 찾아 분석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50)자로 할 것(25점).

인문계열

2013학년도 수시2차 논술고사 예시답안

[문제 1-1]

지식에는 특수한 지식과 보편적인 지식이 있다. 특수한 지식은 대부분 특수한 주위 환경과 밀접한 지식이다. 예를 들어 저 나무에는 다람쥐 둥지가 있다는 지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은 특정의 시간이나 공간에서 특정의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으로서 인간이나 동물의 정신과 기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에 보편적인 지식은 동물들은 알 수 없지만 인간은 알 수 있는 지식이다. 한 예로 모든 생물이 태어나고, 또한 언젠가는 죽는다는 지식을 들 수 있다. 이런 지식은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지식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적용되는 불변의 지식이다.

[문제 1-2]

1 [나]의 글쓴이는 프랑스인과 스위스인들 사이에, 프랑스인과 독일인 사이에 자신이 속한 지역의 문화를 중시하고 타 지역의 문화를 비난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다]의 글쓴이는 조선에서 자국의 시문을 조선의 모국어로 표현하지 않고 중국의 한문으로 표현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2 전자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고, 후자는 문화 사대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자문화 중심주의를 비판하거나 문화 사대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둘 다 문화의 특수성에 갇혀서 서로 다른 문화들의 우열을 가리려는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문제 2-1]

❶ [그림]은 책임의 분산 여부와 희생자의 비인격화 여부가 사람들이 희생자에게 주는 전기충격의 강도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집단적 책임 조건에 있을 때 사람들은 개인적 책임 조건에 있을 때보다 희생자에게 가하는 전기충격의 강도가 전반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❷ 또한 희생자에 대한 기술이 비인격화된 조건에 할당될 때 사람들은 인격화된 조건에 할당될 때보다 희생자에게 부과하는 전기충격의 강도가 전반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❸ 끝으로 집단적 책임의 효과, 즉 개인적 책임 조건과의 차이는 희생자가 인격화되거나 중립적일 때에 비해 비인격화되었을 때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은 집단적 책임 대 개인적 책임 조건과 희생자의 인격화 대 비인격화 조건 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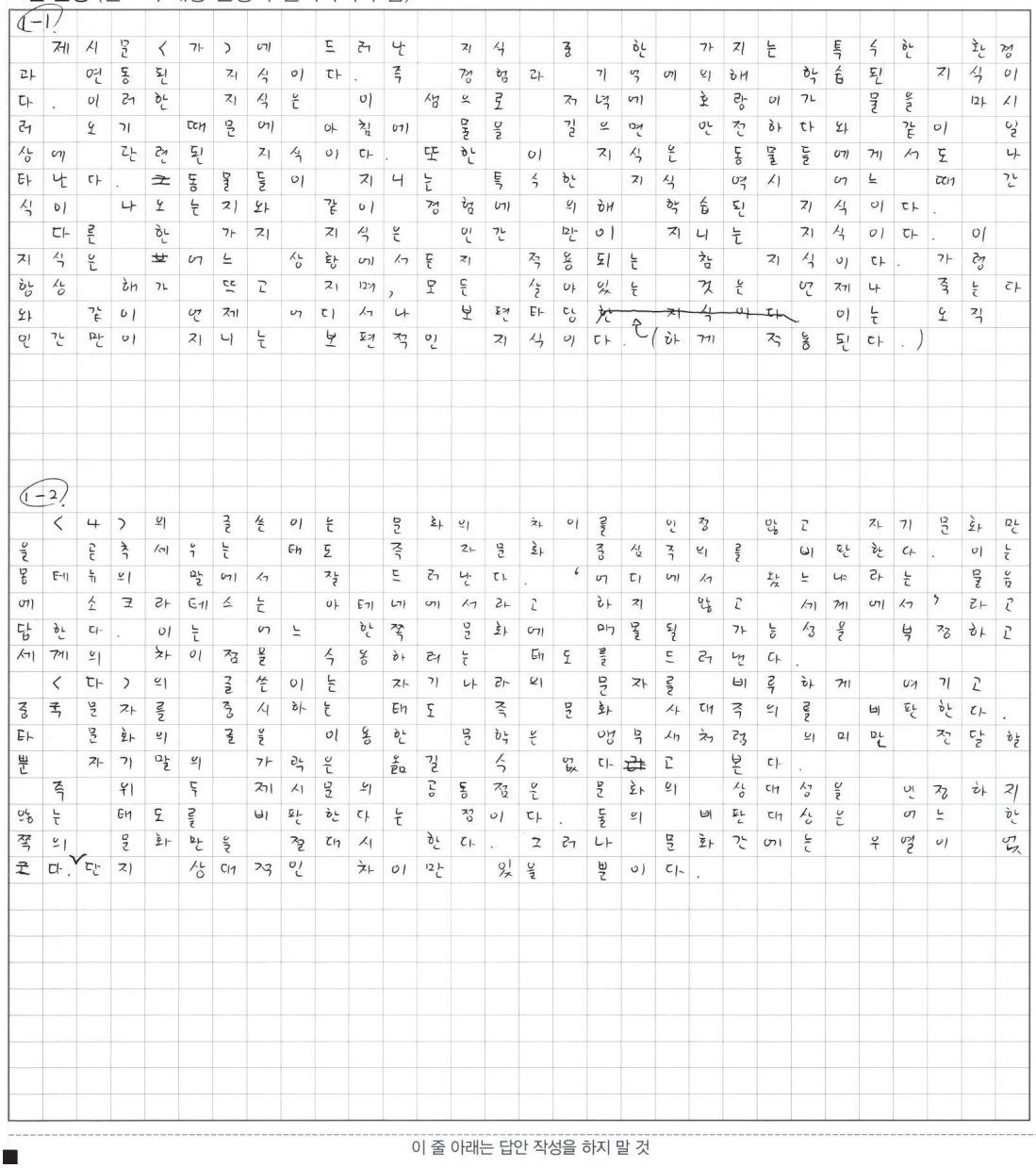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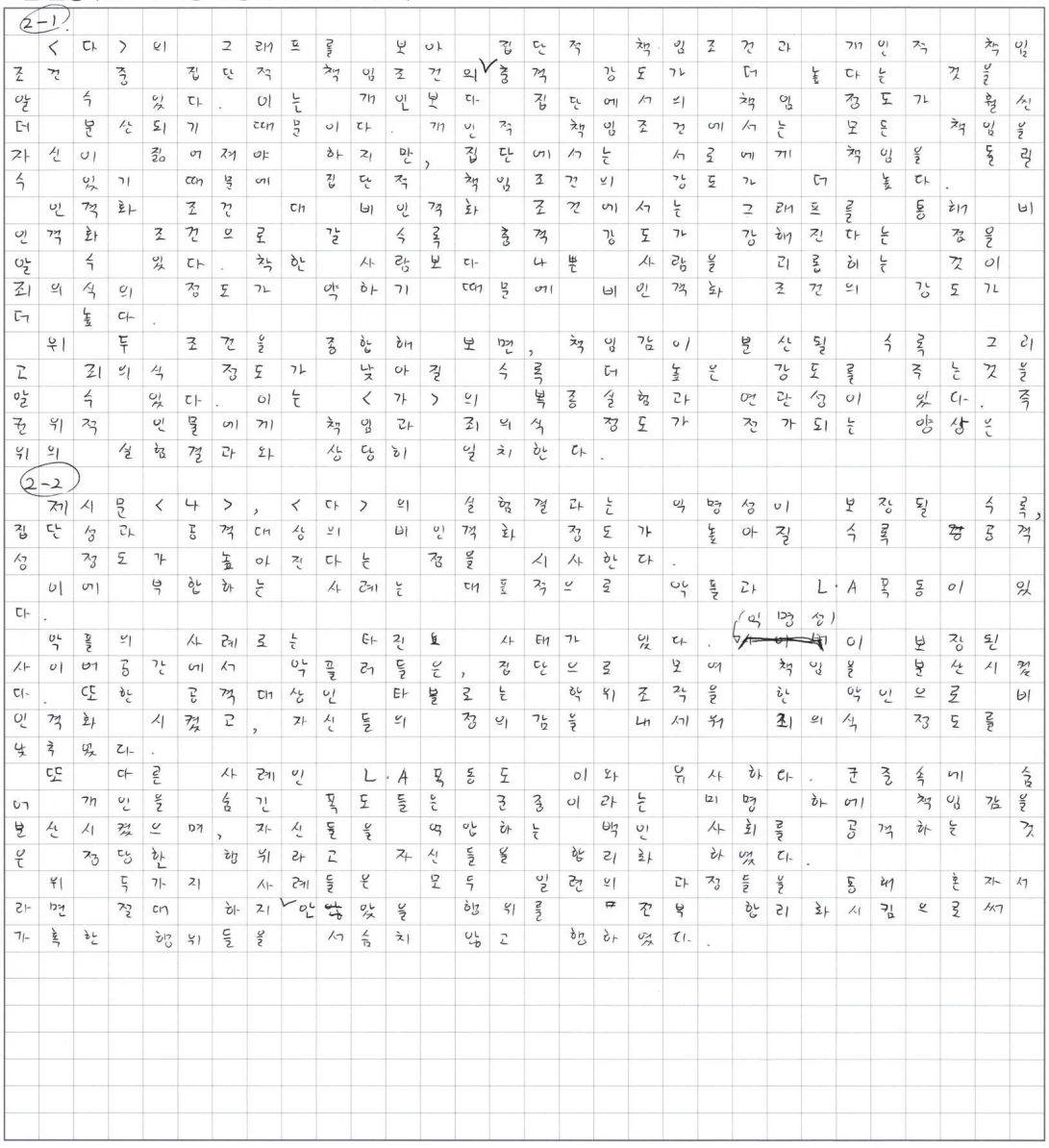
[문제 2-2]

❶ 현대 사회에서는 가해자의 비개인화에 따라 공격성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에서 익명의 악플은 실명인 상태보다 더 가혹한 경우가 많다. ❷ 또한 현대사회에서 다수가 군집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집단행동은 분산된 책임감으로 인해 잔인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왕따의 경우가 그렇다. ❸ 오늘날의 공격 행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를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피해자는 인간이 아니라 단지 파괴되어야 할 물체로 지각될 뿐이다. 예를 들어 묻지마 총격 살인의 경우 피해자 개개인은 비인격화된 타깃 상태에서 공격을 받게 된다. ❹ 특히 이 경우 집단적 책임으로 인해 책임감이 분산되면 공격자가 가하는 공격의 강도는 더욱더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걸프전에서 보듯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어갔지만 책임감이 분산된 공격자는 먼 거리에서 비디오 게임을 즐기듯이 살상했던 것이다.

인문계열

2013학년도 수시2차 논술고사 답안 작성 사례

1번 문항 (반드시 해당 문항과 일치하여야 함)



2번 문항 (반드시 해당 문항과 일치하여야 함)